

보도시점

배포 후 즉시 사용

배포 2026. 10. 28.(수)

한성숙 국무총리 상인들과 골목상권 활력 제고 방안 논의

- 한 총리, 중소기업계에 이어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 초청
- 묵묵히 지역 상권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, 정책건의 청취
-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열려, 골목상권 활성화에 국민들 함께해 주시길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8일(수)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.

- (일시/장소) 10.28(수) 11:40~12:45 / 삼청동 공관
- (참석) 국무총리(주재),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및 시·도 상인연합회 회장

- 이번 간담회는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, 변화하는 유통·소비환경 속에서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소상공인 활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,
- 참석자들이 최근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현장 애로, 정부에 바라는 정책제언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.

□ 한 총리는 “전통시장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의 현장이자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”이라며,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- 이어 “취임 이후 중소기업협단체 간담회와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노력해 왔다”며, “오늘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”고 밝혔다.

- 이날 간담회에서는 골목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.
- 전국상인연합회는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,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
- 한 총리는 “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건의를 한층 더 깊이 들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”고 밝히며,
- “앞으로도 꾸준히 현장 의견을 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,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이어가겠다”며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.
 - 한 총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.
- 한편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‘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’이 열릴 예정이다. 정부는 이 기간 중 상생소비복권을 운영(17억원 규모)하고,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일시 상향(7→10%)하는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.
-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소비활성화 정책*을 통합한 만큼 모두가 즐기는 ‘최대 소비 축제’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* 중기부(동행축제), 산업부(K-세일 페스타), 문체부(숙박세일 페스타), 농식품부·해수부(농축수산물 할인행사), 관세청(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) 등 10개 부처
-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구석구석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소 찾으시는 곳곳에서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임상규 (044-200-2221)
		담당자	사무관	이헌승 (044-200-2217)